



호수돈여자중학교  
김성기 선생님

늦더위 때문에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켜서인지 오후 2시 30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학교는 벌써 조용했다. 호수돈 여자중학교 과학교사 김성기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과학교육실 앞에 다다르니 복도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장들이 보였다. 과학경시대회 대상, 과학동아리 경진대회 대상, 이런 것들이었다. 상장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데, 김성기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다. 요즘 날씨 이야기며 대전 시내 밤하늘 밝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김 선생님의 별 이야기로 넘어갔다.

“1992년에 교사 발령을 받고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우주정보소년단도 맡다보니 자연스럽게 우주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요. 대학교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때는 별을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주로 합창단 활동하고 통기타 치며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죠.”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에도 가입하고 열심히 관측회도 쫓아다녔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던 탓인지, 정작 배워서 알게 된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져가고 있을 무렵 기회가 찾아왔다.

“1998년이던가요?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에 있는 플라네타리움을 잘 활용해보자는 모임이 생겼어요. 시설은 있는데 운영할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지요. 대전 시내 교사를 중심으로 이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모였지요. 한국천문연구원의 김봉규 박사님이 별자리 강연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거 다! 했죠.”

그 이후로 스스로 책도 열심히 찾아서 읽고 이런 저런 모임에도 열

심히 참여했다고 한다.

“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자 더욱 재미가 붙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 한 곡에 매료되었다가 마니아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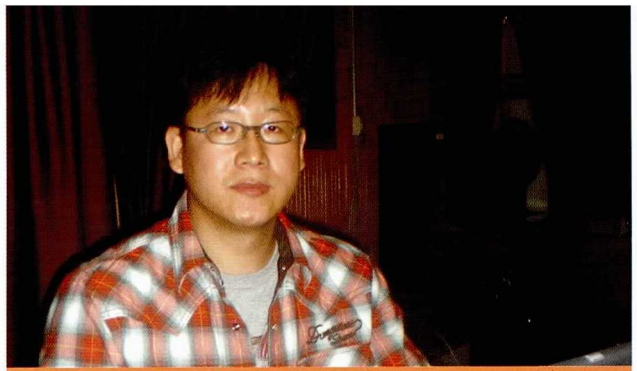
그렇게 해서 별 마니아가 되었고 아마추어천문가가 되었다. 2002년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별자리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구과학 전공 교사들이 북극성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런 현실 인식 아래서 몇몇 대전 지역 교사들과 함께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과 학생 동아리 교육의 일환으로 별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왜 천체 교육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밤에만 해야 하는가? 수업 시간에, 또 방과 후 실내 활동 시간에는 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했지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재미있는 별자리 교육 연구회이고, 그 결과가 김 선생님의 별자리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김 선생님이 근무하는 호수돈 여자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별자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더욱 심화시키고 집대성해서, 2005년에는 공주대학교에서 “중학교 특기 적성 교육에 있어 천체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복도 벽에 걸린 상장들 보셨어요? 우리 과학동아리 아이들이 성취한 것들이예요.”

별자리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아이들 자랑으로 넘어가셨다. 1999년 5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시작한 과학동아리는 여학생들과



밤을 새우며 관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하고 있다. 전국 학생 천체 관측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고, 전국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 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휩쓸기도 했다.

“전국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학교 측에 빅센 망원경 한 대를 사달라고 우겼죠. 당시 가격으로 650만원을 들여서 한 대 마련했습니다. 사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섬세해요. 아기사기하구요. 천체관측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요. 이 아이들과 함께 별자리 교육 프로그램 활동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다섯 명으로 시작한 과학동아리는 늘 20명 정도를 유지하는 탄탄한 동아리가 되었다. 동아리 학생들의 진학과 수상 이야기가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마침 얼마 전에 있었던 교내 과학동아리 발표회 모습을 담은 동영상 보여 주셨다. 웬만한 과학축전 보다 더 짜임새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 물었다.

“솔직히 제가 스스로 만족해하는 게 제일 큰 보람이죠. 학생들의 성취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하고 뭐 그런 것은 그 다음이에요. 제가 우선 즐거운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뿌듯하고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 자연히 그런 느낌이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 아이들도 즐거워지고, 이젠 자기들끼리 활동을 척척해 나갑니다. 교사가 솔선수범하고 보람을 느껴야 아이들이 따라오지요.”

보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정감어린 욕쟁이 선생님이라고 자처하는 동안의 김 선생님 얼굴에 또 한번 미소가 흘렀다. 아이들 생각에서일거라고 확신한다. 천생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망원경 얼마짜리 망원경을 사면 좋겠느냐는 질문 받으면, 사지 마시라고 합니다.”

태양계도 있고 달도 있는데 왜 하필 별자리 교육이냐는 질문에 느닷없이 망원경이야기부터 꺼내셨다.

“눈으로 보고 배울 것이 많아요. 별자리가 그런 것이지요. 우선 별자리에 익숙해진 다음에 쌍안경도 사서 별을 보고 천체망원경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를 돋우게 하는 방식이고 맞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간단한 별자리 강의가 이어졌다.

“대상에 따라 어린이용, 성인버전 다양해요. 우선 별바라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그 계절 별자리를 보여줍니다. 북극성 찾기부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Starry Night나 The Sky 같은 좀 더 복잡한 별자리 프로그램으로 성운과 성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두칠성에는 별이 몇 개? 이런 돌발 질문을 던집니다. 일곱 개라고 하면 별자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미자르와 알코르를 보여줍니다. 답은 여덟 개!”

설명을 듣고 있자니 마치 천체투영실 속에 들어와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름철이면 대삼각형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하면서는 ‘직녀 이야기’ 라는 빵작도 들어줍니다. 전갈자리 독침 부분 설명할 때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도 들려주고 ‘호랑이와 수수깡’ 노래도 들어줍니다.”

밤새도록 들어도 즐거운 것 같은 밤하늘 여행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찍은 별자리 사진을 보여주고 별자리를 찾아보게 합니다. 아 찾았다! 아이들은 찾는 재미에 푹 빠집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직접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아보게 하지요. 자질구레한 별자리 설명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는 직접 만든 입체별자리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제공한다고 한다.

대전시민천문대에서 별노래 통기타 가수로도 데뷔했던 김 선생님은 강연 중에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다고 한다. 부인은 천문지도자로, 초등학교 아이들은 별축제에서 아빠의 입체별자리 모형을 조립하는 도우미로 온 가족이 별과 함께 예쁘게 살아가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님의 권유로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대전지부를 맡아서 헌신적으로 일하기도 하셨고 지금은 감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하지만, 무엇보다 별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순수한 아마추어천문가이고 싶은 것이 김 선생님의 크지만 작은 소망이다. 처음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목성을 보고 실망했다가, 점점 눈에 들어오는 희미한 줄무늬와 목성 위성의 아름다움을 느껴가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신다.

“그 동안의 작업을 정리해서 별자리 교육 프로그램 책을 내는 게 다음 목표입니다. 폐교를 하나 구해서 친한 친구 가족들과 주말에 실컷 별을 보면서 지냈으면 하는 꿈도 꿉니다. 어린이 천문과정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고 싶고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욕쟁이 선생님이시다.

“돌고래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은하수에서 탁 튀어 오르는 생동감이랄까... 살고자 하는 느낌, 살아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돌고래자리에서는 이런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오면서 문득 돌고래자리가 바로 김성기 선생님 자신일거란 생각이 들었다.